

JY 새해 첫 행보는 '상생과 현장'... 협력사 동반성장 의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평택 파운드리 설비 반입식 참석
원익IPS·피에스케이·솔브레인 등
협력사들 초청해 경사 함께 맞아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새해 첫 반도체 업계 경사를 함께 했다. 삼성전자의 동반 성장 노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평택 2공장 파운드리 설비 반입식에 주요 협력사 대표 5명을 초청했다. 이우경 ASML코리아 대표와 이윤환 원익IPS 회장과 박경수 피에스케이 부회장, 이준혁 동진세미켄 부회장, 정지완 솔브레인 회장 등이다.

삼성전자가 협력사를 초청한 이유는 함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동반 성장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 7월 평택 공장에서 출하식을 열 당시에도 협력사를 향한 감사를 빼놓지 않았고, 크고 작은 행사에도 협력사 대표들을



삼성전자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과 주요 임직원과 함께 평택캠퍼스 파운드리 설비 반입식을 지켜보고 있다.

초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초청된 협력사들은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당시에는 '반도체 소부장 독립'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원익IPS와 피에스케이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에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성장한 협력사들이다. 지난해 4월에는 설비 부품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으로 업무협

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원익IPS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반도체 협력사로 꼽힌다. 반도체 웨이퍼에 활용되는 CVD 장비와 핵심 기술을 국산화시키며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2018년 삼성전자 기술 지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로부터 LCD와 노광, 세정 등 디스플레이 사업 일부를 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이 평택 사업장 EUV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수받기도 했다.

피에스케이 역시 삼성전자와 인연이 깊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1990년 설립했을 당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웨이퍼 클리닝의 일종인 건식 스트립 공정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초미세공정 관련한 장비를 개발하며 삼성전자 초격차에 기여하고 있다.

동진세미켄과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에 대규모 투자를 받은 반도체 소재 관련 협력사다. 2017년 각각 251억원, 556억원 규모를 유상증자 형태로 지원 받았다.

동진세미켄은 극자외선(EUV) 장비에 필수적인 소재 '포토 레지스트' 국산화 일등공신이다. 1973년 설립한 화학 소재 업체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다양한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다. 솔브레인은 웨이퍼 클리닝 작업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해내면서 반도체 독립을 이끈 주인공 중 하나다. 그 밖에도 여러 공정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들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ASML코리아를 제외한 4개사는 삼성전자 협성회 회원사들이다. 협성회는 1981년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설립한 단체로, 현재 201개 기업이 매출 57조9000억원에 28만3000여명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협성회 40주년을 맞아 뉴스룸에 기념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에어프리미아, 날개도 못 뻗는데 '존폐위기'

운항증명 심사 1년 가까이 진행 중
면허 취득 2년내 취항 못하면 취소

에어프리미아가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지 약 1년 7개월 만에 다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리미아는 현재 2019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던 LC C(저비용항공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AOC(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리미아 등 저비용항공사 3곳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받고, 한 달 뒤인 11월 양양-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다. 또한 에어로케이도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약 14개월만인 지난달 28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운항증명을 신청한 에어프리미아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에어프리미아의 운항증명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데는 항공기의 도입 지연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에어프리미아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등 LCC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B787 기종의 항공기를 들여와 운항할 계획이다. 그런데 당초 지난해 7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1호기는 9월과 11월에 이어 다시 올해 2월 중으로 연기됐다.

문제는 아직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에어프리미아는 물론 에어로케이도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데 있다. 앞서 2019년 3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당시 국토부가 LCC 3사에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및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취항한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에어프리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초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국토부에서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취소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에어프리미아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서 작은 결함이 계속 발견돼 고치고

있다. 아직 보잉에서 항공기가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현재는 2월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의 2년 내 취항 조건 관련 "그 시기에 맞추려 하고 있다. 비행기가 들어오면 바로 테스트받아 운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에어로케이는 일단 취항 전 마지막 관문이었던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만큼 이달 말 제주-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를 받고 운임을 고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는 물리적인 시간만 소요될 뿐 취항까지 문제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에어프리미아의 면허취소 검토 여부 관련 "상황을 잠정해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며 "어차피 AOC(운항증명) 관련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가 아직 도입이 안 돼서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순환자원 회수로봇

/세븐일레븐

플라스틱 NO! 편의점, 친환경 지킴이 변신

비닐봉투 대신 친환경 봉투 도입
종이컵·접시도 친환경으로 교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도
'일회용품 주범' 시각 탈피 노력

환경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닐봉투, 일회용 도시락으로 인해 플라스틱 온상지였던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을 바꾸기 위함이다.

업계 최초로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봉투를 전면 도입한 편의점 CU는 올해부터 일회용품까지 친환경 제품으로 전격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점포에서 판매하는 종이컵, 접시류 일회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하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들은 재고 소진 시까지만 판매 후 운영을 중단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CU 친환경 일회용품은 소주컵, 종이컵, 접시 등 총 8종이다. 종이컵류의 경우, 100% 미표백 펄프로 만들어 재활용이 용이하고 강도와 방수력이 높은 크라프트지로 제작했다. 생산 과정에서도 화학적 처리를 대폭 줄였으며 지정된 산림의 목재만 사용해 국제산림경영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접시류는 특수 발포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기존 일반 제품보다 원료 사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했다. 또, 모든 제품은 밀봉, 압축 포장함으로써 비닐 사용량을 최소화한 것도 차별점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친환경 의식이 점차 높아지며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판매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1억잔 판매되는 전용 원두커피카페25의 종이컵과 부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모두 변경했으며, 환경부·포장재조합과 협약을 맺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생수, 음료 등을 음용한 후 나오는 투명 페트병 배출 시 라벨지(비닐)를 제거하고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하는 활동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친환경 상품 운영 외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가맹점에 환경 모금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환경재단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1월엔 업계최초로 페트병·캔 자동수거기인 'AI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수도권 주요 점포에 총 6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집콕에 엄지족 쇼핑 폭발... 거래액 15兆

지난해 11월 거래액 '역대 최대'
식품·생활·가전용품 거래 '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3차 유행을 겪었던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 15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거래도 10조원을 넘어서 역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원을 기록해 1년 전(12조8521억원)보다 무려 17.2%나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원을 넘은 건 지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전체 소매판매액(41조5825억원) 가운데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12조1461억원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에는 여행,

교통·문화, 레저·e쿠폰·음식·기타 등 서비스 거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군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식품과 생활 관련 용품 증가가 두드러진다. 간편조식,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 거래 증가로 음식서비스와 농·축·수산물도 각각 47.1%, 60.1% 증가하며 식품도 1년 전보다 거래액이 49.7% 증가했다.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생활·주방가전 판매가 증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 거래액도 전년보다 42.4% 급증했다. 화장품 용품과 세제 등 생필품 거래 증가로 생활용품 판매도 36.0% 늘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